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달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96	512	153	97
(하느님 약속하신 분)	(주여 우리는 지금)	(오소서 주 예수여)	(구원의 메시아)

제 1독서 | 이사 (40,1-5.9-11)

화답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좌)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우)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좌)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 2독서 | 베드로 2서 3,8-1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 1,1-8

영성체 후 묵상 |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베드로 사도의 권고대로 티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Catechism for Kids

☆ What is prayer?

Praying means talking to God.

Praying means giving your heart to God.

Praying means becoming still.

Praying means listening to God.

Praying means thanking Him.

Praying means asking him, telling him everything: all your worries, all your fears, everything that weighs on your conscience, everything that makes you happy.

Praying also means accepting things that are sad and asking God to be with you in difficult times.

☆ How can I hear God?

You cannot hear God like you hear people or sounds around you. God talks to you very softly because he does not want to frighten you. He uses a secret language – the language of the heart.

Sometimes you hear his voice inside you.

Sometimes through the words of the Bible, Sometimes in coincidences.

Sometimes he speaks to you through other people.

☆ How can I speak to God?

If your heart is with God it doesn't matter if you talk or just stay quiet. God hears you when you speak to him through a prayer you know by heart. And he hears you when you simply say in your own words what's on your mind.

☆ Does God hear our prayers?

God doesn't miss a single request.

He often fulfills our wishes, and sometimes he also does not do so. Sometimes he does not do so immediately. Sometimes he gives us something else that is better for us, which we only recognize in hindsight.





교황님과 함께하는 교리교육 - 신앙과 인간의 존엄성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물건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세 1,27). 이러한 방식으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존엄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존중하면서 당신과 친교를 이루고,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친교를 이루며 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친교와 조화 안에서 살도록 말입니다. 창조는 조화로움(harmony)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친교 안에서, 친교인 이 조화로움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탄생시키고 보호하며, 일하고 땅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조화롭지 않다면, 생명은 번성하고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화롭지 않다면, 생명은 파괴될 것입니다.

조화롭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시각의 사례를 우리는 복음서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예수님께 청원한 사건입니다(마태 20,20-28). 그녀는 자기 아들들이 새 임금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십니다.

곧,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곧바로 고통받고 있던 눈먼 두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당신 제자로 삼으심으로써 이를 확인시켜 주십니다(마태 20,29-34 참조).

인생에서 출세하려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려 애쓰면, 조화로움은 파괴됩니다. 이는 지배의 논리이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논리입니다. 조화로움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눈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이기주의적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조화로움을 거스르는 두 가지 나쁜 태도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관심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조화로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점들을 바라보게 하며, 친교를 이루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언어, 혹은 각자 처한 상황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조화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인과 함께 하는 기도 - 성 이냐시오의 봉헌기도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기억과 지력,
내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으소서.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공지 사항



* 여러분께서 꾸며주신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당 입구에 설치되었습니다. 트리에 달아주신 여러분의 기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대림시기 동안 주님께 계속해서 청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대림 제 4주일 및 성탄대축일 미사 안내

* 12월 24일(주일)

- 3:00pm: 대림 제 4주일 미사 (Kor)

- 9:00pm: 성탄대축일 전야 미사 (Eng)

* 12월 25일(월)

- 10:00am: 성탄대축일 미사 (Eng)

- 3:00pm: 성탄 대축일 미사 (Kor)

2. 반주 및 독서 봉사자 모집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전례분과장님께 (김수현 수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12월' 교황님 기도 지향

사회가 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 제도들이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존중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미사 참례자 수 |

12/3	유아·청소년: 15명	성인: 49명
12/10	유아·청소년: 12명	성인: 41명

| 우리들의 정성 | (12/2 ~ 12/8)

봉 헌 금	\$194	가자 위기 구호 성금	\$135
교 무 금	\$570	* 모금된 구호성금은 Caritas 호주지부를 통해 기부됩니다.	
김요한	김정수	김천주	양홍석
이재희	장호훈	전인철	조성희
최민식			윤현대
			주정자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2/10)	이국원 필립보 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12/17)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2/10)	요한반
다음주 (12/17)	루카반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1.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
해주세요. (예: Gildong Hong)